

## 중앙학교 박민오의 독립운동

황인규\*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중앙학교 학생 3·1운동 주도
- III. 독립운동 지하신문의 제작 및 배포
- IV. 나가는 말

### 한글요약

본 논문은 중앙학교 박민오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박민오는 중앙고 전신인 중앙학교 출신이지만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 출신으로 착란되어 연구되고 있다. 박민오는 남해군 출신 박노영으로 통도사에서 출가하여 ‘민오’라는 법명을 받은 듯하다. 박민오는 통도사 부속 명신학교를 다니다가 통도사의 주지 구하와 중앙학교와 관련이 깊은 윤치오의 소개로 중앙학교의 실질적인 (재)창립자인 인촌 김성수에게 인도되어 중앙학교에 다녔다. 박민오는 3·1운동의 책임자로 알려진 중앙학교의 숙직실을 중심으로 3·1운동 준비에 참여하였다. 3·1 학생운동 당시 학년 급장으로서 탑골공원에 주도적으로 함께 하였으며, 그 후에 서울 시내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도 동참하였다.

박민오는 중앙학림의 총참모 신상완과 중앙학림의 백성욱과 함께 중앙 참모가 되어 3·1운동을 진두 지휘를 하였다. 또한 중앙학림의 김봉신 등과 함께 지하신문인 <革新公報>와 배재고보 학생들과 함께 <자유신종보>의 제작 및 배포에 참여하였다. <혁신공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박민오는 동급생인 임봉순과 중앙학림 김봉신 등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와 연계하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중국 남경을 거쳐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그 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에서 신지식인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이와 같이 박민오는 통도사 승려로서 현 서울 중앙고인 중앙학교에서 수학하였다. 3·1학생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지하신문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한 일제강점기 불교계 독립운동가였다.

### 주제어

박민오, 박노영, 김성수, 중앙학교, 중앙학림, 3·1운동, 혁신공보, 자유신종보

\* 동국대 서울캠퍼스 역사교육학과 교수.

© 『大覺思想』 제30집 (2018년 12월), pp.225-253.

## I. 들어가는 말

박민오(1897~1976)는 그동안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불교학계와 문학계에서 조금 등장할 뿐이었다. 동명이인과 혼동되거나 출신교가 잘못 알려진 경우도 적지 않다.<sup>1)</sup> 그의 존재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사실 때문이다. 그는 통도사 승려 출신으로 3·1운동시 학생 대표로서 만세 시위 운동을 주도하는 등 뛰어난 독립운동가였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는 드물게 승려출신으로 미국에 건너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하버드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문학에도 자질이 뛰어나 ‘동양의 마크트웨인(Oriental Mark Twain)<sup>2)</sup>이나 ‘친선 문화대사<sup>3)</sup>로 일컬어졌다.<sup>4)</sup>

1) 박민오는 호적에 ‘박정선’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출생해서 한동안 박정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양산 통도사 출가후 (戒名인 듯한) 박민오라고 하였다. 현 서울 중앙고등학교인 중앙학교에서 수학한 후 3·1 학생운동을 주도하였으며, <혁신공보> 등 독립운동 지하 신문을 통한 독립운동을 하면서 박노영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박민오와 같은 시기에 학생 독립운동을 하였던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朴老永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특히 일부의 연구에서 착란하였듯이, 현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학림 출신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다른 별고 「통도사 승려 박민오의 생애와 활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7,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 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2018을 참조하기 바란다.

2) Park, Lanhei Kim, *Chinaman's Chance: An Autobiography*; 2nd rev. ed. Boston: Edward K. Meador, 1943. Chapter 15, True Love. p.145.

3) 위의 책, p.58.

4) 박민오와 관련 해외의 관련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allan, Chinn. "Preface." Lanhei Kim Park. *Facing Four Ways: the Autobiography of Kanhei Kim Park*. Ed. Chinn Callan. Oakland: Orchid Park Press, 1984; Han, John. "No-Yong Park." *Asian American Autobiographies: A Bio-Bibliographical Critical Sourcebook*. Ed. Guiyou Huang. Westport: Greenwood Press, 2001; Jakobson, Roman. "On Realism in Art." Roman, Jakobson. *Language in Literature*. P Ed. Krystyna Pomorska and Stephen Rudy. P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1987; P Kim, Elaine H. *Asian America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the Writings and their Social Contex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2; Kim, Elaine H, "These Bearers of a Homeland": An Overview of Korean American Literature, 1934-2001. *Korea Journal* 41: 3 (Autumn 2001): 149-97; Lakoff,

본고는 박민오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그가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앙학교<sup>5)</sup> (재)설립자 인촌 김성수와와의 조우, 3·1운동 참여시 만해 한용운과 백초월을 중심으로 한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학림(1915~1922) 학생들과의 관계, 3·1운동 시 활동, 그 후 중앙학림 출신 승려학생과 중앙학교 및 타 고보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 지하신문의 제작 및 배포, 그것을 통한 상해 임시정부와의 소통을 가지며 전개한 독립운동 등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박민오가 재학하였던 현 서울 중앙고의 전신인 중앙학교 학생과, 그리고 중앙학림 학생들과 함께 한 불교계 독립운동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천착이 박민오라는 인물이 지니는 근대 불교계의 위치와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그의 위상이 정립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sup>6)</sup>

George, and Mark Johnson. *Metaphor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Metraux, A.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ecurity Council Statement by Experts on Problems of Race." *American Anthropologist* 53:1, 1950; Park, Lanhei Kim. *Facing Four Ways: The Autobiography of Lanhei Kim Park*. Ed. Chinn Callan. Oakland: Orchid Park Press, 1984; Park, No-Yong. *Chinaman's Chance: An Autobiography*. 2nd rev. ed. Boston: Edward K. Meador, 1943.

그리고 국내 연구는 다음이 유일하다. 김옥동, 「박노영의 『중국인의 기회』, : 이민 자서전의 가능성과 한계」, 『외국문학연구』 32, 2008; 김옥동, 「제 2장 문화적 동화에서 탈동화로」,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 작가』, 소명출판, 2012.

5) 중앙학교는 일제의 교육령에 따라 1910년 11월에 중앙학교로 개정되었으며, 1921년 4월 1일 중앙고등보통학교로, 1938년 4월 1일 중앙중학교로 개정되었다. 해방 후 1946년 9월 2일 조선 임시 과도정부 교육령에 의해 6년제 중학교로, 1950년 4월 30일 중앙중학교, 같은 해 중앙고등학교가 병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참조. 본고에서는 당대 학명인 중앙학교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6) 필자는 『동대 90년지』 편찬 간사를 역임하고 『동대 100년사』를 기획하면서 모교인 동국대 교사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줄고를 발표한 바 있다. 황인규,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개교와 학풍」, 『불교 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2007; 황인규, 「허영호의 생애와 1930·40년대 불교계 활동」, 『만해학보』 14·15, 만해사상실천 선양회, 2015; 황인규, 「허영호의 1930·40년대 불교교육 활동과 동국대」, 『동국사학』 59, 2015. 향후 동국대 校史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기를 기대해 본다.

## II. 중앙학교 학생 3·1운동 주도

박민오는 통도사에서 출가 후 통도사 부속학교인 명신학교<sup>7)</sup>에서 수학한 후 서울 중앙학교에서 유학하였다. 1913년 무렵 한용운이 통도사 강원의 강사로 약 1년간 있을 때부터 사제지간으로 잘 알고 있었으므로 박민오도 한용운과 소통되었을 개연성도 있었을 것이다.<sup>8)</sup> 아울러 통도사 학교인 명신학교 교장 윤치오가 1911년 무렵 중앙학교 교장을 지냈던 사실과, 윤치오 교장 이후 유성준과 유길준 형제가 중앙학교 교장에 재직할 무렵에 학교 재정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촌 김성수가 중앙학교를 인수하였다. 당시 통도사의 주지가 박민오를 후원할 김성수에게 소개하여 주었다.<sup>9)</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신학교 교장과 중앙학교를 맺게 되는 윤치오의 권유로 당시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가 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김성수는 중앙학교를 운영하면서 일제에 의해 강제 퇴학당한 보성고보와 경신학교의 학생을 중앙학교로 받아들이고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던 사실<sup>10)</sup>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박민오의 중앙학교의 입학에 허용하였을 것이며, 졸업시까지 그의 사택에 머물도록 배려해주었다. 김성수는 金思容의 집을 사서 숙소로 삼고 계동 중앙학교 교장 사택인 숙직실에서 그를 비롯한 3.1운동 준비 모임 등 당대 지식인과 교사 및 학생들의 집합처로 삼았다.<sup>11)</sup>

7) 통도사가 세운 명신학교는 1931년 4월 하북보통학교로 승격되어 오늘날 하북초등학교가 되었다.

8) 김광식, 「박영희의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대각사상』 25, 2016 참조.

9) Park, Lanhei Kim, *FACING FOUR EAYS*, Ed. Chinn Callan. Oakland: Orchid Park Press, p.1984, 144, 144, 289, 293, 297, 'Then the chief monks of the temple introduced him to a prominent sponsor, a Mr. Sung Soo Kim, in Seoul and him there. He stayed at Mr. Kim's home untill he finished Chung-Ang High School, which had been founded by Mr. Kim's father.'

10)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참조.

11)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p.202.

박민오는 이승호와 같이 숙직실에 가서 몇 번 놀긴 하였지만 나와 같은 하급생이고, 보기에 유치하고, 보기에 뿐 아니라 실지로 유치하지 않고 훌륭해 보이는 유위의 청년이라 할지라도, 천재일시로 좋은 기회를 만나 중대 한국사를 모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기미를 누설할 수는 없는 것이다.<sup>12)</sup>

이렇듯 중앙학교 숙직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지식인 등의 회합처였다. 한국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의 전 남편이자 김성수의 친구인 金雨英은 당시 숙직실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sup>13)</sup>

여름방학에 귀국하면 서울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은 우리 동지들의 집회처였다. 인촌은 이사도 아니하고 중앙학교 숙직실에 거거했다. 그 때 고하도 인촌과 함께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역시 기개만장(氣概萬丈)으로 세계정세를 통론하여 일미전쟁(日美戰爭)을 예언하며 불안한 장래에 우리의 독립은 필연적으로 도래하리라고 주장하면 인촌은 묵묵히 경청하다가 때로 미소 지으며, 그러니 우리 민족의 능력을 양성하여 호기(好機)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다.<sup>14)</sup>

당시 중앙학교의 전·현직 교사였던 최남선, 류근, 이광중, 임규, 현상윤 등은 만해 한용운이 운영하는 『유심』지의 집필진으로 활동하였다. 유심사는 중앙학교 바로 아래 계동 골목에 위치하여 중앙학교와 지근 거리에 있었고 김성수의 집과도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 이 유심사에서 만해는 1918년 9월부터 『유심』을 간행하여 당시 불교계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의 계동 자택에는 金法麟·白性郁·申商玩·金尙憲 등 중앙학교 학생들이 한용운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만해 한용운은 강대련·안진호·이종욱 등과 함께 명진학교 1회 졸업생(단기과정인 보조과 출신)으

12) 李淑, 『竹槎回顧錄』, 신홍인쇄소, 1993, p.67.

13) 김우영, 「나와 삼일운동」, 『회고』, 신생공문사, 1954 참조.

14) 김우영, 「내가 아는 인촌」, 『신생공문』 1955년 6월호 참조.

로 알려져 있으며<sup>15)</sup>, 중앙학림의 강사였다. 한용운은 1918년 창립된 현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 동창회의 초대 회장으로 6개월간 역임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신상완·백성욱·김법린·정병헌 등이 회장직을 계승하였다. 중앙학림 재학생으로만 구성된 唯心會<sup>16)</sup>는 교리를 연구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정치 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1922년 중앙학림의 휴교사태로 학생 자치조직인 유심회가 사라진 상황이었다. 중앙학교 교장의 사택은 3·1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가장 조직적인 단체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 종교단체와 전문학교 고등보통학교였다. 이러한 상황하에 중앙학교 교장의 사택인 숙직실에서 국내 지성인들과 해외 유학생들의 집합 장소가 되게끔 한 것이다.<sup>17)</sup>

때마침 1918년 미국 대통령 Wilson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는 우리와 같은 핍박받는 나라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고베[神戸]에서 영국인의 발행하는 『Japan Advertiser』의 12월 1일자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李承晩, 閔燦鎬, 鄭翰景 세 사람이 한국 민족대표로 한국독립을 제소코자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sup>18)</sup> 이러한 소식<sup>19)</sup>

15) 한용운은 1909년 12월 10일 원흥사(동국대 최초 학교 터)에서 3개월 과정의 명진 학교 부설 ‘정성명진 측량강습소’를 개설하여 일제의 토지침탈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한용운은 사찰 마다 보통학교와 중학교를 설치하고 중앙에 전문학교를 세우며 승려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범학교의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동국대학교, 『동국대 100년사』 2006 참조.

16) 명진학교 학생들은 1908년 자치적 연구기관인 廣學會를 조직하여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李鍾郁, 姜龍船, 姜大蓮, 安震湖, 權相老 등이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돕고자 하였다. 명진학교 이래 학생활동의 중심점이 되었다. 광학회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한 형태로 유지되다가 중앙학림 시절에 이르러 졸업생들로만 구성된 一心會와 재학생으로만 구성된 唯心會로 분리되었다. 교지편집위원회, 『동대 70년사』, 동국대출판부, 1976. ; 동국대학교, 『동국대 100년사』 2006 참조.

17)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p.203 참조.

18) 류시현 번역,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재팬 애드버타이저 3·1운동 기사집』, 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 김승태, 『『재팬 애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의 3·1운동 관련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2016 참조.

19) 같은 해인 1918년 12월 15일자 『東京朝日新聞』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독립운동자금으로 30만원을 모금하였다.’라는 기사도 찾아진다.

을 접한 후 동경 조선독립청년단 실행위원이 조직되었으며, 1919년 1월 상순에 독립운동 계획이 수립되었다.

중앙학교 교장으로 있던 김성수는 1918년부터 古下 宋鎮禹와 이 학교 교사로 있던 幾堂 玄相允과 거의 날마다 학교 내에 있는 교장 사택에서 만나 국내에서 전개할 독립운동을 기획하였다.

In this house, called Sam Il Kwan or Tree-One Hall, Mr. Sung Soo Kim and my husband had met secretly day and night with another fifty or so members who represen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until March 1, 1919, when the Sam Il Wun Dong, or March First(Three- One) Independence Movement, went public and staged demonstrations in Seoul.<sup>20)</sup>

이와 같이 김성수는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박민오를 비롯한 50여 명의 학생들과 밤낮으로 만나 독립운동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박민오는 ‘활발한 사람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해내는 남아’<sup>21)</sup>로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우리 學友들과 서로 마조 안저 燦爛한 將來를 討論한 적이 1, 2次가 아니었나이다.’<sup>22)</sup>라고 회고했듯이 활발하게 확고한 신념으로 중앙학교 학우들과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였다.

1919년 1월 초순 일본 동경 조선독립청년단 실행위원 宋繼白이 백관수의 소개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중앙학교의 사택을 찾았다. 白寬洙는 김성수의 고향 친구로 중앙학교 교사를 하다가 일본 유학중이었다. 결국 3·1운동의 거사가 계획 실행되었는데, 李東煥 중앙고 출신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

20) Lanhei Kim Park, *Facing Four Ways*, : the Autobiography of Kanhei Kim Park. Ed. Chinn Callan. Oakland: Orchid Park Press, 1984, p.295.

21)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권14, 「三一運動 I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 調書(檢事調書) 全俊禧 신문조서.

22) 『개벽』 12, 1921년 6월 1일, 美國學生의 自立性.

제 6대 교장 淸庵 權秉德 선생은 3·1운동시에 33인 중의 1인으로 독립 선언에 조선민족대표로 서명하였고 모교의 전임 교사이던 林圭선생과 제 9대 교장 古下 宋鎭禹선생과 幾堂(혹은 小星) 玄相允 선생은 3·1운동시에 48인 중의 인물로서 仁村, 古河, 幾堂 세 선생은 재임 중에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우리의 역사를 창조한 3·1운동을 계획하였고, 따라서 중앙학교는 3·1운동의 策源地가 되었으며, 임규선생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정부와 일본 귀족원과 중의원에 조선독립선언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sup>23)</sup>

이와 같이 3·1운동의 책원지라 알려진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인촌(당시 28세), 고하(당시 29세), 기당(당시 26세) 세 사람<sup>24)</sup>의 중앙학교 요인이 바로 3·1운동의 설계자였으며, 제 6대 중앙학교 교장 淸庵 權秉德(1867~1944)은 위암 손병희와 더불어 민족대표로 서명한 33인이었다.<sup>25)</sup> 중앙학교의 실질적인 설립자이며 3·1운동의 핵심 요인으로 독립운동의 자금을 지원하였던 인촌 김성수<sup>26)</sup>와 중앙학교의 송진우, 현상윤, 최남선은 민족대표 48인이었다.<sup>27)</sup> 중앙학교 제6대 교장 권병덕이 민족대표 33인에, 3·1

23) 이동환, 「중앙학원의 독립정신」, 『중앙 100년사』, 1998, p.575.

24) 인촌기념회편, 『인촌 김성수전』, 1976, p.30.

25) 이미 널리 알려 있듯이 3·1운동의 민족대표는 손병희 등 천도교계 15인, 이승훈·길선주 등 기독교계 16인, 불교계 2인 등이었다. 불교계의 인사는 韓龍雲과 白龍城이지만 중앙학립의 민단본부의 백초월과 중앙학립 학생 신상완, 백성욱과 김법린, 김봉신, 오택언 등과 중앙학교 박민오 등은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핵심인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던 기독교계 연희전문학교 金元璧, 보성법률전문학교 康基德은 김원벽과 강기덕은 48인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26)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리하여 나와 宋鎭禹 金性洙씨는 계동 仁村의 別館에서 상경한 이씨를 회견, 그 동안 在京동지들의 계획과 천도교의 동향을 말하고 기독교 측의 참가와 동지 규합의 일을 청하니 李昇薰씨는 즉석에서 쾌락하고 金性洙씨로부터 數千圓의 운동비를 받아 그날 관서지방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玄相允, 「3·1운동 발발의 개략」, 『사상계』 1963년 3월호 참조.

27)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은 앞서 언급한 31인과 망명한 김병조와 옥사한 양한목을 포함한 것이며, 민족대표 48인은 민족대표 31인과 17인인 박인호, 김홍규, 노현용, 이경섭(이상 천도교), 김도태, 안세환, 함태영, 김원벽, 김세환(이상 기독교), 임규, 송진우, 현상윤, 최남선, 강기덕, 정노식, 김지환, 한병익을 지칭한다.

운동의 설계자였던 중앙학교의 운영 핵심 요인이었던 현상윤과 송진우가 3·1운동 민족대표 48인에 포함되었지만 중앙학교의 설립자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3·1운동 기획의 설계자인 김성수가 3·1운동 민족대표 48인에도 들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sup>28)</sup> 물론 그 후 그의 친일 행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3·1운동의 설계자로서 그 위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송진우와 현상윤이 105인 사건으로 도산 안창호가 창설한 평양 대성학교가 폐교 당한 사실<sup>29)</sup>을 들어 김성수에게 3·1운동 최종 단계에서 서울을 떠나도록 권유하여 중앙학교의 폐교를 막도록 하였다.<sup>30)</sup> 따라서 김성수와 송진우와 현상윤 등이 중앙학교를 중심으로 전개한 독립운동에 기여한 사실은 좀 더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무렵 나는 金性洙 宋鎭禹 양씨와 중앙학교 교내 사태에 동거하고 있던 관계로 朝夕으로 時事를 논하는 동안 말이 여기에 미치면 3인이 다 같이 초조하였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큰 운동을 일으키려면 먼저 단결력이 있는 天道教를 움직이는 것이 상책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1918년 11월경부터 수개월 동안 의견 교환과 모의를 거듭한 결과 擧事를 결행하기로 하고 일변 동지를 구하는 의미로 崔南善씨의 참가를 구하는 동시에 타일변으로는 천도교의 중진 吳世昌 權東鎭씨와 연락하여 孫秉熙씨의 궤기를 중용하고 있었다.<sup>32)</sup>

28) 인촌이 3·1운동에 관여했으나 38인이나 48인에 들지 않은 것은 송진우 현상윤이 검거되어 고초를 겪으면서도 인촌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이다. 인촌기념회편, 『인촌 김성수전』, 1976, p.30. ; 신일철, 「한국 근대화의 선각자 인촌의 생애」, 『평전 인촌 김성수』, 동아일보사, 1991, p.23.

29) 도산선생 기념사업회, 『도산 안창호』, 1938 참조.

30)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p.56.

31) 김성수는 비타협적인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지만 협력적 저항을 하였다는 시각은 참조할 만하다. 이원범, 「김성수의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과 협력」,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58, 2009 참조.

32)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참조.

알려진 바와 같이 3·1운동은 총참모격인 현상윤<sup>33)</sup>과 송진우가 지도하여 보성전문 졸업생 朱翼을 통해 전개되었다. 그리고 보성전문 康基德, 연희전문 金元璧, 경성의전 韓偉健 등이 기독교계 청년 朴熙道(1889~1952)와 李甲成(1886~1981)이 최연소의 나이였지만, 그들의 지도를 받은 각 학교 대표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문: 朴魯英을 아는가. 답: 동인은 약 4년 전부터 알고 있다. 문: 동인으로부터 신문을 발행하고자 하니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답: 그런 사실이 있다. 그것은 7일의 일이다.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제발 써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나는 韓偉健이라는 사람에게 (의학전문학교 생도) 이야기를 하였더니 진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다음날 점심때 동인이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朴의 집에 갖다주라고 하여서 나는 한번도 읽어 보지도 않은 채 朴의 집으로 가져다 주었다. 그것이 7일의 일이다. 그때에는 朴은 寬勳洞에 있었다. 위 원고는 朴에게 직접 건네주었다.<sup>34)</sup>

중앙학교 4학년 학생 張基郁(10회)가 대표로 선정되어 강기덕 등과 연락하며 총지휘하였다.

당시 중앙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張基郁군(10회, 징역 10월)이 대표로 선정되어 전교생을 총지휘했는데 張군은 학생단의 대표들과 만나 운동의 실행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학교에 돌아오면 이를 각 학년 주동 학생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 운동의 成不成은 학생들의 결속 여하에 달려 있음을 주지시켰다.<sup>35)</sup>

당시 3·1 학생운동의 각 학년 대표가 선정되었는데, 4학년 학생인 박경조, 이시웅, 류연화, 김갑수, 이동제, 최석인, 3학년 학생인 이병관 등 6인, 2학년 학생인 이희경, 임동건, 김응관, 한중건, 김승제, 이관석, 1학년 학생인 조무환, 최종걸, 장석도, 김종현, 김윤옥, 전봉건, 한호석, 최시열 등이었다. 그 후 서울과 지방에서 몇 달 동안 계속된 시위에서 검거된 중앙학교 학생들은 확인된 수만도 30여 명에 이르게 된다.<sup>36)</sup>

박민오와 최현, 서승해 등은 3·1 학생운동 당일 오전 수업을 받았는데<sup>37)</sup> 玄相允교장은 수업중 학생들에게 세계의 정세를 들려주면서 “굿 차안스! 굿 차안스!”를 연발하며 역사적인 이 운동에 참가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고 한다.<sup>38)</sup>

중앙학교 전교생은 3월 1일 탑동공원에서 참여한 후 시내 각처로 전개하였으며, 며칠 후인 3월 5일 오전 9시에도 남대문 역전 광장에도 참여하였다.

『죽사회고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박민오가 중앙학교 학생대표로 나온다.

중앙학교 학생 대표격인 朴珉悟 崔鉉 등에 의해서 約得大概하였지만 3월 1일 전야에 학생들이 맡은 일은 독립선언서 배포와 민중동원 등 일선 행동대 역할이었다. 2월 28일 밤 승동 예배당에서 각 학교 학생 대표들이 모여 각기 할당된 자기 몫의 독립선언서를 배정받아 가지고 제 각기 맡은 장소에 살포하였다.<sup>39)</sup>

박민오가 중앙학교 학생 대표격이라고 나오지만,<sup>40)</sup> 실제로는 4학년 급

35) 이운학, 「되돌아본 중앙 100년사」, 『계우회보』 100, 2000년 12월 30일.  
 36) 중앙중·고등학교, 『중앙 육십년사』, 1969, pp.103-106. ; 중앙고등학교, 1993, pp.54-56. ;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pp.211-212.  
 37) 李淑, 『竹槎回顧錄』, 新興印刷所, 1993, p.74.  
 38) 현상윤, 「3·1운동 발발의 개략」, 『사상계』 1963년 6월호 참조.  
 39) 李淑, 『竹槎回顧錄』, 신흥인쇄소, 1993, p.72.  
 40) 정세현, 『항일 학생운동사 연구』, 일지사, 1975, p.101.

33) 『竹槎回顧錄』, p.121, “현상윤씨는 평안도 출신으로 일찍이 일본 동경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즉시 중앙학교 교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동교 교장도 지내었고 중앙학교 재직시 삼일운동 산파역으로 총참모격으로 눈부신 활동을 하였고 …”.  
 34)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권14, 「三一運動 I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 調書(檢事調書) 全俊禧 신문조사.

장으로서 일선 행동대 역할이었다. 高等普通學校 2년생인 朴秀燦(20세)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문: 朴魯英은 급장인가. 답: 급장은 아니다. 평소에 동인은 대단히 진실한 남자이다. 별로 완력을 쓰는 사람도 아니다. 지나치게 활발하지도 않다.’<sup>41)</sup>고 하였다. 中央學校 2학년생인 金應寬(20세)은 ‘문: 그대 학교의 급장은 누구인가. 답 薛亨植이라는 사람이다.’라고 하여 중앙학교에서 파악한 기록<sup>42)</sup>과 일치한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민오와 동급생인 4학년 장기욱이 전체 대표를 맡았으며 4학년생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한 학생은 박경조, 이시웅, 柳淵和, 김갑수, 이동제, 최석인 등<sup>43)</sup>과 김종훈, 김도영 등이었다.<sup>44)</sup> 박민오가 3·1운동 시 참여한 모습은 다음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들(박민오, 최현, 서승해 등)은 오전수업을 받는 등 마는 등 그럭저럭 형식만 때우고 각기 맡은 반의 급장을 통해서 몇 시까지 탑동공원으로 집결하도록 밀통하곤 우리들은 재빨리 공원 후문에 들어서니 공원에 학생들만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자꾸만 꾸역꾸역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정자를 중심으로 입추의 여지없이 삼밭에 삼박히듯 뻑뻑하게 들어섰다.<sup>45)</sup>

위의 인용한 기록과 더불어 앞서 인용한 朴秀燦 신문조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찾아진다.

문: 3월 1일에 어떠한 이유로 동 공원에 모이기로 된 것인가. 답: 3월 1일 점심을 먹을 때에 동급생인 朴魯英이 조선민족은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으므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날 터이

니 손뼉을 치거든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시간과 장소는 알려주지 않았다.<sup>46)</sup>

박민오는 3월 초순 무렵에도 격문을 발행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문: 朴魯英이 전부터 격문을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곤란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대는 姜善弼이 그대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동인으로부터 10원짜리 한장을 얻어서 朴魯英에게 준 사실이 있는가. 답: 그런 사실이 있다. 그것은 姜의 집에서 받았다. 姜의 집은 水橋町 98번지인데 閔孚勳의 집에 있다. 7일의 낮에 내가 姜의 집에 갔더니 동인은 요즈음 신문이 발간된다는데 거기에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10원짜리를 주어서 나는 돌아오는 길에 朴魯英의 집으로 가서 동인에게 주었다. 동인에게 준 것은 점심때가 지나서이다. 문: 그대는 朴魯英으로부터 檄文의 초안을 써 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않은가. 답: 그런 부탁은 받지 않았다. 문: 그후 그날 밤에 朴의 집에 간 사실은 없는가. 답: 朴이 나의 집으로 놀러 왔다. 그리하여 함께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기에 동인의 집으로 갔다. 잠시 후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 金世龍과 奉在龍이라는 사람이 차례로 찾아 왔다. 金世龍은 칠필판의 원고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서 朴은 다락으로 안내한 후에 원지에다 한장 써 달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할 수 없이 3枚만을 써주고 나머지 3枚는 朴이 썼다. 그리하여 오전 2시경까지의 사이에 705·60枚를 인쇄하였다. 문: 그때 신문의 초고는 누가 가지고 왔는가. 답: 朴이 가지고 왔다. 白紙는 笑屋이라는 곳으로부터 사 온 것이다. 등사판은 우리들이 갔을 때에는 실내에 놓여 있었다. 문: 백지는 이미 사 와서 있었지 않은가. 답: 그것은 나와 朴이 함께 朴의 집으로 갈 때에 4百枚를 사고 부족한 4百枚는 朴이 또 笑屋으로 사려고 나갔다. 문: 결국 인쇄를 하여 배부를 하였으며 金世龍이 3百枚 정도를 그대가 5百枚 가까이 배포한 것인가. 답: 그렇다. 그날 밤은 朴의 집에서 자고 8日 아침에는 安國洞의

41)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4, 「三一運動 I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

42)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p.211.

43) 위와 같음.

44) 李淑, 『竹槎回顧錄』, 신홍인쇄소, 1993, p.74.

45) 위와 같음.

46)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권14, 「三一運動 I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

西·南 方面에다 배포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인쇄물은 奉在龍 이 나와 동숙하고 있었으므로 동인이 가지고 왔다. 문: 그 신문은 배포 하였는가. 답: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받은 가지고 갔다. 받은 堅志洞·寺洞·鍾路通 등에 배포하였다.<sup>47)</sup>

이렇듯 박민오가 3·1운동에 참여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 한편 박민오는 중앙학림 학생들과 3·1운동을 함께 하였다고 생각 된다.<sup>48)</sup> 김법린에 의하면, “現惠專의 前身 佛教中央學林의 學生 申尙玩, 白性郁, 金祥憲, 鄭炳憲, 金大鎔, 吳澤彥, 金奉信, 金法麟과 中央學校의 朴珉悟 等은 故 萬海 韓龍雲先生의 緊急한 命令에 依하여 桂洞에 있는 先生의 自宅으로 모이었다.”<sup>49)</sup>고 하였다. 다음의 기록이 좀 더 구체적이다.

거사 2월 28일 밤 한용운 스님은 평소 아껴오던 중앙학림(지금 동국대학교 전신) 신상완, 김상현, 정병헌, 백성욱, 김법린, 오택언, 김봉신, 김대용, 그리고 중앙학생인 박민오 등을 계동에 있는 잡지 『唯心』사로 긴급히 불러 모아 서울과 전국 각지의 승려 및 신도들을 총동원 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전략을 세워 지시하였다.<sup>50)</sup>

위의 인용한 기사에서 보듯이 1919년 2월 28일 밤 10시에 모인 학생들은 유심회에서 한용운의 지도를 받았던 중앙학림의 학생 申尙玩·白性郁·金祥憲·鄭秉憲·金大鎔·吳澤彥·金奉信·金法麟 등과 중앙학교의 학생 朴致悟 등이었다.<sup>51)</sup> 만해는 2월 28일 천도교측의 이종일로부터 10,000매(일설에는 3,000매)의 독립선언서<sup>52)</sup>를 인수하여 그날 밤 10시경 이들에게 건네주며 3월 1일 오후 2시에 시내 일원에 배포하도록 당부하였다.<sup>53)</sup>

이미 연구된 바와 같이 한용운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은 중앙학림 학생들은 사태가 시급함을 느끼고, 인사동에 있던 범어사 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겨 긴급 회의를 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들은 전국의 불교계의 총궐기를 위해 全國佛教徒獨立運動 總參謀本部를 두고 중앙학림의 유심회장이었던 신상완이 총참모로 추대되고 중앙학림의 백성욱과 중앙학교의 박민오는 참모가 되어 향후 3·1운동을 진두지휘를 하였다.<sup>54)</sup>

불교계의 3·1운동의 전개는 대체로 중앙학림 학생들의 활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법린과 김상현은 동래 범어사에서, 오택언은 양산 통도사에서, 김봉신은 합천 해인사에서, 김대용은 대구 동화사에서, 정병헌은 화엄사에서 각기 자신의 연고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sup>55)</sup>

47) 위와 같음.

48) 참고로 중앙학교 출신으로 불교계에서 활동한 인물은 白南奎(8회), 朴東一(15회), 鄭駿謨(17회), 張道煥(17회), 金苐石(17회), 李甲得(17회), 李覺日(18회), 崔文錫(18회), 朴在植(18회), 朴奉石(18회) 등이 있었다. 백남규는 졸업 후 중앙학교 교사를 역임하다가 불교계의 동광고등보통학교 교장에 재직하였으며 박동일과 정준모는 중앙불전의 강사를 역임하게 된다. 장도환은 쌍계사 주지로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서기장을 역임하고 『불교』지의 편집주임을 맡게 된다. 김영식은 순천 송광사 출신으로 혜화전문과 동국대 교수에 재직하게 된다. 이각일은 중앙불전을 졸업하였고 박봉석은 통도사 학림 출신으로 중앙불전을 졸업하고 도서관 수호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중앙학교 출신으로 동국대에 재학 재직했던 인물은 박동일과 정준모, 김영식, 박봉석이며, 박재식은 박민오와 같은 고향인 남해군 창선 출신이다. 중앙교우회, 『인물로 본 중앙 100년사』, 2009, pp.665-666.

49) 김법린, 『3·1운동과 불교』, 『新天地』 1-2, 1946년 3월號, p.15. ; 『한국불교 항일투쟁 회고록』 ; 동래읍 기미만세사건, 『대한불교』 1964년 9월 6일.

50) 『한국불교 항일투쟁 회고록』 ; 3·1운동에서 8.15광복까지 숨어 있던 이야기, 『대한불교』, 1964년 8월 23일.

51)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I 分冊, 東京: 原書房, 1967, pp.399-400. ; 金法麟, 앞의 글. ; 安啓賢, 『3·1運動과 佛敎界』,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3 참조.

52)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에서 직영하던 普成社에서 비밀리에 35,000매가 인쇄되었다.

53)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pp.89-90.

54) 중앙학림이나 독립운동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연구 성과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광식, 『중앙학림과 식민지불교의 근대성』, 『사학연구』 71, 2003. ; 한동민, 『일제 강점기 신상완의 독립운동』, 『대각사상』 13, 2010. ; 김현남, 『김봉신 스님의 항일운동에 관한 사료 고찰』, 선리연구원 제8차 월례발표회, 2009 참조.

55) 당시 지역 불교계 만세운동 중 봉선사만은 서울중앙학림 학생들과 직접적 연관이 없었다. 김현남, 앞의 논문 참조. 중앙학교 제2대 교장 포암 박승봉 장로와 유길준의 동생 유성준은 1909년 경성 안국동에 한국인 스스로 운영하는 안동교회를 세워 기독교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안동교회와 관련이 깊은 유길준의 차남

서울 시내를 담당한 학생들은 3월 1일 새벽 3시에 각각 회의장을 떠나 시내 포교당과 서울 근교의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으며, 지방을 담당한 학생들은 3월 1일에 일어나 서울 시내의 만세 운동에 참가한 후, 독립선언서를 간직하고 제각기 지방 사찰로 향하여 지역별 만세운동을 지도하였다.

그 후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중앙학교 학생들도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중앙학교 4학년 류연화, 최석인, 백광필(학년미상) 등은 경신학교 강우열, 배재고보 김병호 등과 함께 윤익선, 이종일, 김홍규 등이 발행했던 조선독립신문(24호부터 종간호인 27호까지)을 발행하여 배포하였다. 이희승(9회), 임봉순(10회), 류홍(11회) 등은 잣골과 20여명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조선독립신문을 배포하였다.<sup>56)</sup>

### III. 독립운동 지하신문 제작 및 배포

이렇듯 3·1운동은 4월이 시작되면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박민오는 같은 중앙학교 동급생인 윤익중과 함께 4월 1일 동대문 교회의 영국인 여성 전도사 Pearson의 집에서 金相玉의 주도로 이루어진 革新團의 결성에 동참하였다. 여기에는 불교학원 졸업반 申華秀, 보성중학 3학년 鄭高敎가 함께 하였으며, 며칠 후 휘문중의 李春植의 연지동 집에서 서대군, 김우진, 김화룡, 심주택이 추가 가입하였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거의 매일 1회 소식지 <혁신공보>를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김상옥은 단원의 조직과 선전 배달을 박민오는 편집 취재 논설을, 윤익중은 재정 조달을 그 외 나머지 단원은 이를 뒷받침하였다.<sup>57)</sup>

<革新公報(또는 華新公報)>의 제작에는 중앙학림 강사였던 白初月 東照(1878~1944)를 중심으로 중앙학림에 결성한 항일 비밀결사인 韓國民團本부의 도움이 컸다. 한국민단본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아래와 같이 지하신문 <혁신공보>를 간행하였다.

우선 불온 문서를 간행하여 인심을 교란시킬 계획으로 한국민단본부라는 단체를 경성 중앙학림 내에 설치하여 스스로 민단부장이 되어 자금 모집에 활약하였으며, 또 금년 7월 이후 스스로 사장(社長)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전기 김재운 집필 하에 박윤(朴允) 등과 함께 혁신공보(革新公報)라는 비밀 출판물을 간행 배포하였으며...<sup>58)</sup>

<혁신공보>의 제작 유포는 다음의 <매일신보>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혁신공보를 발행한 혐의로 본년 5월 이래로 수색하던 중앙학교 졸업생 柳基元이 '본년(1919년) 5월에 이르러 중앙학교 생도 柳淵和·崔碩實 등이 주모가 되어 인쇄 철필하던 <自由民報>를 인계하여, <革新公報>라 개칭하고, 韓景翼 등과 공모하여 제작하였다.<sup>59)</sup>

이와 같이 중앙학교 졸업생 유기원과 재학생 유연화와 최석실 등과 중앙학림의 한국민단본부 단장인 백초월과 김법린, 김상헌, 김상호 등이 독립운동 지하신문을 발행하는데 참여하였다.<sup>60)</sup> 민단본부에서는 중앙학림

(中央學校) 학생으로 그 운동에 참가하여 혁신공보를 비밀출판하던 박로영(朴魯英)(原名 朴珉梧)라는 기사가 찾아진다. <동아일보>, 1923년 4월 17일, 「재미조선유학생의 순회강연」,

58) 「高警 第34511號 -독립운동자금 모집자 검거의 건(1919.12.5)」, 『독립운동사 자료집 9 : 임시정부사 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0, pp.431-432.

59) 『매일신보』 1919년 11월 30일, 「불온문서 전부 압수」.

60) 백성옥, 「동국60주년 회상기: 3·1운동과 중앙학림」, <동대신문>, 1966. 6. 20. ; 김광

유익검도 중앙학교 교사였다.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pp.224-228.

56)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p.212.

57) 이정은, 『김상옥평전』, 김상옥의사 기념사업회, 2014, pp.2211-238 참조. <동아일보>에 의하면 '오년 전 조선 내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중앙학교

의 신상완과 백성욱·김법린·김대용·김상현 등을 임시정부와 만주 등지에 파견하여 국외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지사들과의 소통 연락하게 하였다.

申尙玩 및 金祚憲은 佛敎側 代表者라 하고 孫秉熙 등 三十三名의 獨立宣言書 著名者의 한 사람인 僧侶 韓龍雲과 結託하고 金奉信, 金法允, 金大鎔, 白性郁 등과 함께 市內 各學校生徒代表者와 連結하여 中央學校生徒에게 獨立事象을 鼓吹하고 …(중략)… 다시 上海로 가서 七月 中旬 白初月 및 金奉信으로부터 金 二千元의 送金을 얻어 이를 當時의 臨時政府 內務總長 安昌浩에 交付하고 …(중략)… 京城으로 歸來했는데 九月 末日에 이르러서도 上海에서 宣言書가 到着하지 않아서 上海로 向해 出發했다 同地 到着後 朴政悟 및 金奉信이 鮮內에서 募集한 運動資金 二千元을 受領했다.<sup>61)</sup>

이러한 가운데 경성에서 활동하였던 중앙학교의 박민오와 중앙학림의 김봉신에게 전달하여 <혁신공보>를 발행케 하여 지방에까지 배포케 하였다.

客年 3·1獨立運動 勃發 以來 <革新公報> 其他 檄文을 配布하였다는 嫌疑로 다음과 같이 柳年秀 외 3名을 京畿道에서 檢擧하다. 이들은 昨年 9月頃 金嘉鎭과 더불어 上海 大韓民國臨時政府로 亡命한 任鳳淳, 朴政悟, 金奉信 등이 同地에서 보내온 <獨立新聞>, <新大韓>, <革新公報>, <新韓青年> 등 各種 文書를 配布하였었다.

柳年秀(21, 京城府 花洞 138) 未逮捕

金榮善(26, 京城府 嘉會洞 175 菓子商) 逮捕

李壬昌(18, 京城府 體府洞 117 京城高普 生徒) 逮捕

金用仁(29, 京城府 光化門通 57 雜貨商) 逮捕<sup>62)</sup>

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p.64.

61) 「불령승려 검거의 건」, 『한국민족운동 사료』 삼일운동 기이, 국회도서관, 1978, pp.590-591.

62) 1920.2.13 高警 第3728號 ㉞ 不隱印刷物配布者及獨立運動資金募集者檢擧の件高等

유년수는 중앙학교 교장을 지내고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유근의 장남이었다. 중앙학교 졸업생과 함께 <혁신공보>의 운영에 관여하는 한편 박민오는 또 다른 지하신문인 <자유신종보>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당시 경성지방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의 내용이 찾아진다.

第三 동창생인 박민오란 자로부터 동년 6월 초순부터 10월 28일까지 “조선인은 조선독립운동에 찬동하고 상호협력하여 조선의 독립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적은 <자유신종보> 제1호 내지 제16호의 제목으로 문서 초고를 받았으며, 또 그 범의를 계속하여 위의 기간 내에 매회 50매 내지 40매 정도를 경성부 종로통 6정목 52번지 任洛彬의 집에서 비밀리에 등사기를 사용하여 인쇄하였는데, 위의 사실은 피고가 당 법정에서 증거물과 같이 시인한 사실이다.<sup>63)</sup>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박민오는 1919년 6월 초순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중앙학교 졸업생 柳基元과 재학생 崔碩寅 등과, 배재고보 3학년인 박세영과 송영 등과 함께 <자유신종보>의 제작 및 배포에도 관여하였다.<sup>64)</sup>

그런 와중에 <혁신공보>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 등의 어려움에 처하는 가운데 국내의 중앙학교 박민오와 중앙학림의 김봉신은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데 동참하였다.<sup>65)</sup>

第3728號-(秘)不隱印刷物配布資金獨立資金募集者檢擧の件(1920.2.13.) ; 『일제침략하 36년사』 5, p.24.

63) 「유기원 판결문」(『국가기록원 포탈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컬렉션』 관리번호 CJA0000417 : 한상도, 「3·1운동 직후 『自由晨鍾報』 간행을 통해 본 국내 독립운동계의 동향」, 『한국근현대사 연구』 52, 2010, p.85.

64) 이는 배재고보 3학년인 박세영과 송영이, “자주 독립사상을 내용으로 한 등사판 신문” <자유신종보>를 6호까지 발간하였다는 회고에서 알 수 있다. 염무웅, 『분화와 심화 어둠 속의 풍경들』, 민음사, 2008, p.117. ; 한상도, 앞의 논문, p.86.

65) 「불령승려 검거의 건」, 『한국민족운동 사료』 삼일운동 기이, 국회도서관, 1978, pp.590-591.

이와 같은 사실은 『竹槎回顧錄』에 ‘우리들 서승해, 임우식, 이춘학, 김도영, 박민오 등은 시내 중국 요리점인 대관원에 모여 밀의한 결과, 각기 독립운동 자금모집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sup>66)</sup>는 기록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같은 해 8월 하순 국내에 들어온 중앙학림의 신상완이 수령해 상해 임시정부로 다시 가서 전달하였다. 같은 해 9월<sup>67)</sup>에 김상옥이 주도하는 혁신단은 <혁신공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중앙학교 박민오와 중앙학림 김봉신을 상해로 파견하였던 것이다.

昨年 九月頃 任鳳淳, 朴致梧 및 金奉信 三名은 男爵 金嘉鎭과 더불어 上海로 密航하여 臨時政府에 投身하여 同地에서 不穩文書의 發行에 從事하여 該文書를 在京城의 前記 柳年秀 外 三名에게 密送하고 있었다.<sup>68)</sup>

즉, 중앙학교의 박민오와 동급생인 임봉순과 중앙학림 김봉신 등은 혁신단 특과원의 임무를 띠고 김가진과 더불어 1919년 9월경에 상해로 임시정부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를 찾아갔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僧侶 申尙玩이 鍾路警察署에 逮捕되다. 申尙玩은 上海 臨政에 加擔하여 僧侶 李鍾郁 白性郁 등과 韓國佛教徒를 代表하여 獨立運動에 奔走하고 있었는데 臨政 內務總長 安昌浩의 指令으로 最近 歸國하여 國內 僧侶를 糾合하여 義勇僧軍을 組織하고 또 獨立運動資金의 募集과 有力한 僧侶인 海印寺 住持 李晦光을 上海로 보내려던 企劃이 탄로되어 逮捕되었는데 이에 關聯된 者는 다음과 같다.

申尙玩(30, 龍珠寺 僧侶 別名 田長春 金子萬 金裕元 李春谷) 逮捕  
 金祥憲(28, 梵魚寺 僧侶 別名 裴達翁 金達) 逮捕  
 金太洽(30, 釋王寺 僧侶) 逮捕  
 李錫允(23, 安城 靑龍寺 僧侶 別名 李春谷) 未逮捕  
 白初月(42, 靈源寺 住持) 未逮捕  
 李鍾郁(38, 月精寺 僧侶) 未逮捕  
 白性郁(26, 奉國寺 僧侶) 未逮捕  
 金奉信(26, 海印寺 僧侶) 未逮捕  
 金法麟(22, 梵魚寺 僧侶) 未逮捕  
 朴致梧(24, 通度寺 僧侶) 未逮捕  
 金大鎔(22, 孤雲寺 僧侶) 未逮捕  
 姜大呂(30, 鐵原代書業) 未逮捕  
 趙潤如(43, 牧師) (別個事件으로 江原道에서 逮捕)<sup>69)</sup>

위의 인용한 기록에 따르면,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의 지령으로 최근에 귀국하여 국내 승려를 규합하여 義勇僧軍을 조직하고 독립운동 자금의 모집과 유력한 승려인 해인사 주지 李晦光을 上海로 보내려던 기획이 탄로되면서 실패로 그쳤다. 이에 중앙학림의 申尙玩, 金祥憲, 金太洽은 체포되었으며, 李錫允(李春谷), 李鍾郁과 중앙학림의 白初月, 白性郁, 金奉信, 金法麟, 중앙학교의 朴致梧(24, 通度寺 僧侶), 金大鎔(22, 孤雲寺 僧侶) 등은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민오는 한 동안 상해에 머물면서<sup>70)</sup> 혁신단의 임무를 수행

66) 李淑, 『竹槎回顧錄』, 新興印刷所, 1993, p.81.

67) 『김상옥평전』에 의하면 혁신단원 박민오와 김봉신을 상해로 파견한 시기를 12월 2일로 보았으나(이정은, 『김상옥평전』, 김상옥의사 기념사업회, 2014, p.240) 여러 상황의 전개로 미루어 보아 9월이 맞는 듯하다.

68) 『高警 第3728號 - 不隱印刷物配布者及獨立運動資金募集者檢舉の件(1920.2.13.)』, 『한국민족운동 사료』, 『삼일운동 기이』, 국회도서관, 1978, p.735.

69) 『朝鮮獨立運動史』 卷1, 分冊 『朝鮮國內に於ける民族主義運動』. :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권5 참조.

70) 앞서 인용했던 죽사 이숙은 3·1운동 후 상해로 건너가 임정 요인과 접촉하다가 중앙학교 출신으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하던 김기영(13회), 남용기, 최현, 최하청 등과 자주 만났다. 그러다가 중앙학교 출신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또한 중앙학교(기호학교 특별과) 1회 졸업생인 김두봉을 만나기도 하였다. 김두봉은 김원봉의 학교 선배이면서 외삼촌으로 임정의 『한일관계 사료집』(전4권) 사료편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김두봉은 중앙학교 출신 무정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총사령으로 함께 일하였다. 김두봉은 화북조선독립동맹 주석으로, 김원봉은 의열단장으로 세 사람의 항일 무쟁투쟁사는 널리 알려지고 있

하게 되지만 상해 임시정부도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2월 하순에 국내의 김상옥 등의 혁신단체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분간 상해임시정부를 기대한다든지 또는 임시정부의 재정적 원조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지들의 승낙도 없이 단독행위를 취하여 죄송하오나 좀 더 먼 앞 날을 위하여 남경 金陵大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sup>71)</sup>

박민오는 이렇듯 상해에서 남경 금릉을 거쳐 1921년 8월에 뉴욕에 도착하였다<sup>72)</sup>고 한다. 하지만 박민오는 '1919年 10월에 狂風에 날려서 南京 上海로 지나 大戰에 破滅된 歐羅巴를 둘러 昨年 7월에 大西洋을 건너 紐育港에 下陸하였나이다'<sup>73)</sup>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1919년 12월이 아니라 10월에 남경과 상해<sup>74)</sup>를 거쳐 프랑스를 둘러보고 1920년 7월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미국에서 살다가 1976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민오는 서울 중앙고등학교 전신인 중앙학교 출신이지만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 출신으로 착란되고 있다. 이는 불교계의 3·1운동의 주역인 만해 한용운의 지도하에 중앙학림 학생과 함께 다루어졌기 때문인 듯하다. 박민오는 통도사 출신 승려이자 현 서울 중앙고 전신인 중앙학교 학생으로서 만해 한용운의 지도를 받아 3·1 운동에 참여하였다. 본고는 특히 이러한 박민오의 3·1운동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하였다.

박민오(1897~1976)는 통도사 출가후 부속 명신학교를 수학한 후 통도사의 주지 구하와 중앙학교와 관련이 깊은 윤치오의 소개로 인촌 김성수가 실질적으로 (재)창립한 현 서울 중앙고등학교 전신인 중앙학교에 다녔다. 박민오는 3·1운동의 책원지인 중앙학교의 숙직실을 중심으로 3·1운동 준비에 참여하였다. 3·1운동 당시 학년 급장으로서 탑골공원에 함께 하였으며, 그 후에도 서울 시내에서 전개된 운동에도 동참하였다.

박민오는 만해 한용운의 지도를 받으며 현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학림의 유심회장이었던 총참모장 신상완, 중앙학림의 백성옥 등과 함께 중앙 참모가 되어 3·1운동을 진두 지휘를 하였다. 또한 중앙학림의 김봉신 등과 함께 지하신문인 <혁신공보>를 발행하여 유포케 하였으며, 또 다른 지하신문인 <자유신종보>의 제작에 배재고보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혁신공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급생인 임봉순과 중앙학림 김봉신 등은 혁신단 특과원의 임무를 띠고 김가진과 더불어 1919년 9월경에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이었던 안창호와 연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 자금의 형편이 여의치 않게 되자 중국 남경으로 거쳐 뉴욕으로 건너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우리나라 승려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박민오는 통도사 출신 승려로, 현 서울 중앙고 전신인 중앙

는데 죽사는 이러한 인물과 함께 하였던 것이다.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p.217.

71) 이정은, 『김상옥평전』, 김상옥의사 기념사업회, 2014, pp.241.

72) Park, Lanhei Kim. *Facing Four Ways: The Autobiography of Lanhei Kim Park*. Ed. Chinn Callan. Oakland: Orchid Park Press, 1984, p.19, CHAPTER II, 'One day in August, 1921, I found myself in the harbor of New York.' 박민오와 동문으로 혁신운동을 하였던 유근의 아들 유년수도 192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73) 『개벽』 12, 1921년 6월 1일, 「美國學生의 自立性」.

74) 박민오는 1920년에 상해에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별책 6, 권96 국민대표회의 II, 일본 관련자료, 4) 上海 경유 프랑스 방면 轉航 조선인(高警 제 21272호 [발신]조선총독부 경무국, [연월일] 1921년 7월 7일), '지난 해 이래 일단 上海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프랑스 방면으로 전향한 자 중에 판명된 자는 다음과 같음 ... 朴魯英'.

학교를 졸업을 전후하여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불교계 독립운동가였다.

### 참고문헌

- 김광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별책 6.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권5.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권14, <http://db.history.go.kr/>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1978.
- 도산선생 기념사업회, 『도산 안창호』, 1938.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 염무웅, 『분화와 심화 어둠 속의 풍경들』, 민음사, 2008.
- 李淑, 『竹槎回顧錄』, 新興印刷所, 1993.
- 이정은, 『김상옥평전』, 김상옥의사 기념사업회, 2014.
- 인촌기념회편, 『인촌 김성수전』, 1976.
-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 정세현, 『항일 학생운동사 연구』 1, 일지사, 1975.
- 통도사,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권상.
- 중앙중·고등학교, 『중앙 육십년사』, 1969.
- 중앙고등학교, 『중앙 팔십년사』, 1993.
- 중앙교우회, 『중앙 100년사』, 2008.
- 중앙교우회, 『인물로 본 중앙 100년사』, 2009.
- 교지편집위원회, 『동대 70년사』, 동국대출판부, 1976.
- 동국대학교, 『동국대 100년사』, 2006.
- 경상남도교육연구원, 『경남교육 70년사』 권1, 2018.
- Callan, Chinn. "Preface." Lanhei Kim Park. *Facing Four Ways: the Autobiography of Kanhei Kim Park*. Ed. Chinn Callan. Oakland: Orchid Park Press, 1984.
- Han, John. "No-Yong Park." *Asian American Autobiographies: A Bio-Bibliographical Critical Sourcebook*. Ed. Guiyou Huang. Westport: Greenwood Press, 2001.
- Park, Lanhei Kim. *Facing Four Ways: The Autobiography of Lanhei Kim*

Park. Ed. Chinn Callan. Oakland: Orchid Park Press, 1984.

No-Yong Park, *Chinaman's Chance: An Autobiography*. 2nd rev. ed.

Boston: Edward K. Meador, 1940.

『개벽』, 『思想界』.

<동아일보>, <경남일보>, <대한매일신보>, <한겨레신문>, <東京朝日新聞>.

김광식, 「박영희의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대각사상』 25, 2016.

\_\_\_\_\_, 「3·1운동과 불교」, 『한국 기독교와 역사』 47, 2017.

김법린, 「3·1운동과 불교」, 『新天地』 1-2, 1946년 3월호.

김현남, 「김봉신 스님의 항일운동에 관한 사료 고찰」, 선리연구원 제8차 월례발표회, 2009.

김승태, 「『재팬 애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의 3·1운동 관련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4, 2016.

김우영, 「나와 삼일운동」, 『회고』, 신생공론사, 1954

김옥동, 「박노영의 『중국인의 기회』: 이민 자서전의 가능성과 한계」, 『외국문학연구』 32, 2008.

김옥동, 「문화적 동화에서 탈동화로」,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 작가』, 소명출판, 2012.

송준식, 「한말 경남지역 근대교육의 보급과 확산」, 『교육사상연구』 27-3, 2013.

安啓賢, 「3·1運動과 佛敎界」,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2011.

현상윤, 「3·1운동 발발의 개략」, 『사상계』 1963. 6.

## Abstract

Park Min-oh's Life and Independence Movement  
in Chung-Ang High School

Hwang In-gyu

(Professor, History Education at Dongguk University in Seoul)

This study looks at the life and independence movements of Park Min-oh, a Jungang high school. Park Min-oh is from the central school, a predecessor of Chungang High School, but is known to have graduated from Jungang School, a former graduate of Dongguk University.

Park Min-oh is from Namhae-Gun and is Park No-young. He appears to have been promoted from Tongdosa to a Buddhist priest who was given the title of "Min-oh." He graduated from Myongshin Middle School while staying at Tongdosa. Later, he entered the central school with the introduction of Yoon Chi-oh, who was deeply involved in the governorship and Chung-Ang High School. He went to high school with the help of Kim Seong-su, the founder of Chung-Ang High School. However, the hostess room of Jungang High School was the center of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He participated in the preparation of the exercise and joined the Tagol Park as a junior high school leader during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at, he also participated in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that took place in Seoul.

He joined forces with Shin Sang-wan, a student of Dongguk University, and Baek Seong-wook, to stage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In addition, he participated in publishing secret Newspaper "Hyuksibgongbo",

along with Dongguk University student Kim Bong-shin.

And he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secret Newspaper “Jayusinjongbo” with students from Paejae High School. As things got worse, he went to Shanghai with students from the same school, Lim Bong-soon and Dongguk University, Kim Bong-shin, to connect with Ahn Chang-ho, the head of the interim government.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via Nanjing, China, when that was not allowed. While staying in the U.S., he wrote articles for local newspapers to break the realities of the Buddhist community, most of whom devoted himself to lectures and writing. He entered a famous university in the U.S. and earned his first doctorate from Harvard University as a priest. He was then called Eastern Mark Twain, reincarnating several literature books.

Key words

Park Min-oh, Park No Young, Kim Seong-su, Jungang High School, Dongguk University, 3·1 Independence Movement, Hyuksingongbo, Jayusinjongbo